

SKC, 김수필 대표이사 부회장 선임

박장석 부사장은 대표이사 사장 승진 ... 내부인사로 경영상 변동 없어

SKC가 7월15일 이사회를 열고 김수필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박장석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수필 부회장

1944년 경남 진주 태생인 김수필 부회장은 진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코오롱 동경지사 지사장, 1981년 유공 사장실 영업담당 팀장, 1995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전무이사), 1998년 SK옥시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02년 2월부터 SKC 화학부문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해왔다.

박장석 사장은 1995년 생으로 서울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를 마치고 미국 스티븐슨공과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으며, 1979년 SKC 입사 이래 음향사업부, 전략기획정보 및 구매담당, 경영지원본부장을 거쳐 2002년 3월부터 SKC 부사장을 맡아 왔다.

SKC 관계자는 “SK가 소버린자산운용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예정보다 인사가 늦춰지면서 자회사인 SKC의 정기인사도 늦었으며, 외부영입이 아닌 내부승진 인사여서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7/19>